

개발된 조선과 해변의 풍속

— 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 고찰

조 윤 정*

요약

이 논문은 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의 표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 담론에 대응하는 작가의 태도와 창작 방법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김남천 소설 속 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성이나 성천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욕장을 주요 사건의 배경으로 설정한 김남천의 소설이 일제 말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정황에 착안하여, 「세기의 화문」, 「바다로 간다」, 「남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국의 식민지 개발에 깃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논리가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를 고찰했다.

김남천은 세 편의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며 억압당했던 상태와 자연-바다가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당했던 정황을 겹쳐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바다를 투기나 관광 자원으로 전유하는 상황, 인간이 바다 그 자체를 응시하고 감각하는 행위,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감정과 욕망의 변화를 구체화했다. 김남천 소설에서 주체화나 자기 해방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바다는 1940년대에 이르러 남비와 부재의식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바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국민정신총동원의 정신과 불화한다. 바다의 풍속을 형상화한 일제 말기 김남천의 소설은, 일상성과 시시성을 문학에 투영하여 대중의 비판력과 정서를 배양하고자 했던 작가적 의지를 실천한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김남천, 바다, 풍속, 식민지 개발, 해수욕장, 국민정신총동원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자극적이고 현란한 풍속'의 소설적 형상화
2. 자연과 육체의 대상화: 한강과 송도원의 신여성
3. 불균등하게 분배된 취약함: 월미도에 간 조선 여급
4. 신체제와의 불화: 낭비의 생활, 부재의식의 문학
5. 결론

1. '자극적이고 현란한 풍속'의 소설적 형상화

해수욕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내륙의 온천장들을 따라잡기 위해 해안가의 휴양도시들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13년 일본인들이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개설했으며,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1923년 인천 월미도에 대조탕을 개설하고, 원산 해수욕 주식회사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원조를 받아 원산에 송도원 해수욕장을 개설하면서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²⁾ 이들 해수욕장의 개설은 경인선(1899), 경부선(1905), 경원선(1913) 같은 철로가 개통되어 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데 힘입은 것이다. 탄소 기반 자본주의 시대에 해변은 특권적인 여가 장소로 떠오른다. 해변은 산업과 유희의 틈새에서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 역학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장소이다.³⁾

개발된 자연으로서의 해변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감각적 강렬함과 자기 인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취미 휴양 공간으로 새롭게 부상한 해수욕장은 화려한 소비문화의 공간이자 낙원인 동시에 타락한 애욕이

1)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한길사, 2001, 121면.

2) 다케쿠니 토모야스, 소재두 역, 『한국 온천 이야기』, 논형, 2006, 143면.

3) Hannah Freed-Thall, *Modernism at the Beach: Queer Ecologies and the Coastal Comm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pp. 1-2.

펼쳐지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조선인이 공유한 취약성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해변을 자주 활용했다. 여름 해수욕장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은 여러 소설에서 연애나 여성의 운명과 관련하여 주요한 배경으로 등장했다.⁴⁾ 가령, 일제 말기 소설로는 이태준의 『화관』(『조선일보』, 1937. 7. 29~12. 22), 한용운의 『박명』(『조선일보』, 1938. 5. 18~1939. 3. 12), 이광수의 『애욕의 피안』(『조선일보』, 1936. 5. 1~12. 21)과 『사랑』(박문서관, 1938~1939) 같은 작품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소설은 주로 원산항이나 원산 인근의 해수욕장, 인천 월미도를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

이태준과 한용운의 작품에서 여주인공은 바다에 빠져 남성 인물에 의해 구조된다. 여성 인물은 구원자 남성과의 로맨스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남성 인물이 생명 구조를 빌미 삼아 여성을 자기 뜻대로 이끌려 하자 남성의 유혹을 뿌리치거나, 남성의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헌신으로 부부의 인연을 이어 나간다. 이광수의 두 작품에서도 바다는 휴양지로 등장하지만, 남녀의 연애보다는 건강 담론이나 기독교 및 불교 사상과 연결되어 정화와 치유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세 작가의 작품에서 바다는 로맨스의 장소보다 정결의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작가들은 그곳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세하고 여성이 종교적 절제와 계몽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에 반해 김남천의 소설에서 여성은 남성의 구원을 매개로 바다와 만나지도 않고, 바다의 정결함이 여성의 삶을 교육적, 종교적 경지로 고양하지도 않는다. 김남천은 일제 강점기에 제국이 내세운 ‘식민지의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난 자연에 대한 끝없는 착취와 자본의 축적 과정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생산 관계⁵⁾와 밀접한 관련을 맺

4) 이항순, 「한용운의 『박명』에 나타난 보살도의 이상과 비구니의 근대성」, 『한국불교학』 51, 한국불교학회, 2008, 148면; 김주리, 「해변과 항구: 바다의 근대적 공간 표상과 이태준의 〈화관〉」,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177면;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59면.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제 말기의 김남천 소설 속 바다 역시 원산과 인천의 해수욕장이다. 그는 도시의 일상을 벗어난 인물들의 감정과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인물들의 상태를 구체화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설 「세기의 화문(世紀의 花紋)」(『여성』, 1938. 3~10), 「바다로 간다」(『조선일보』, 1939. 5. 2~6. 15), 「낭비(浪費)」(『인문평론』, 1940. 2~1941. 2)이다. 그의 소설에서 바다는 식민지화되고, 상품화되고, 인공적으로 설계된 자연을 상징한다. 그리고 바다는 주체의 태도에 따라 역동성과 변이성을 지닌 장소로도 형상화된다. 바다를 주요 공간으로 설정하여 여러 편의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남천은 바다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에 변화를 꾀한다.

김남천은 해변을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이 교차하고 어우러지는 다중 감각의 영역으로 제시했다. 그의 소설에서 바다 앞에 선 주체는 물빛, 파도 소리, 모래의 촉감, 미역 냄새가 불러일으키는 감각 속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인식한다. 이는 식민주의하에서 자연이 조작 가능한 물질로 인식되었던 정황과 겹쳐볼 때 의미심장하다. 자기조직적이고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자연’은 식민화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단순한 재료로 변형되어 갔다. 그러나 ‘자원(resource)’의 어원인 라틴어 ‘resurgere’는 ‘다시 일어나는(rise again)’이라는 의미로 자기재생(self-regeneration)을 뜻한다.⁶⁾ 일제 말기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바다의 감각은 그가 자연 그 자체 뿐 아니라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자기 인식과 재생 능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그것에 대응하는 조선인의 태도를 형상화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

평안남도 성천이 고향인 김남천에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는

5)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갈무리, 2022, 82면.

6)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역,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192-193면.

원산이었다.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은 「세기의 화문」의 주인공 하애덕이 애인 김남수를 처음 만나는 장소이자, 「낭비」의 주인공 이관형이 지인들과 여름을 보내기 위해 찾았던 곳이다. 「바다로 간다」의 주인공 최영자의 고향이 원산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고향을 떠나 경성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김남천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인천이었다. 「바다로 간다」의 주인공 최영자가 작품의 말미에 고향 원산을 회상하며 새벽 기차를 타고 찾아간 곳은 경성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인천 월미도였다. 경성에 살고 있던 주인공이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이 월미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김남천 소설 연구는 작가로서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자 문학적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던 경성, 그리고 그의 고향 성천에 집중되었다.⁷⁾ 이 때문에 일제 말기 그의 소설에서 바다가 고향, 관광지, 투기장 등으로 등장하며 당대 현실을 반영했던 양상은 간과되었다. 원산 해수욕장이 작품의 배경으로 전면화되었던 「낭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의 소설을 지배하는 “퇴폐와 몰락의 정서”는 작품의 배경이나 환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일으키며 “식민 주체의 형성과 소멸, 그 사이의 동요와 불안”을 보여준다.⁸⁾ 해수욕장은, “윤리적 심정과 사회적 관습이 불일치한”⁹⁾ 사회의 내적 모순을 외화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던 김남천

7) 홍덕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다시 읽기: 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41-74면; 류수연, 「김남천 소설과 ‘성천(成川)’」,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1-84면; 이동재, 「김남천 문학의 공간적 표상과 장소성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권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작과 비총체화된 총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6, 한국현대문학회, 2022, 235-268면; 이동재, 「신체제의 숲으로 난 송고한 산책로: ‘어떤 아침(或る朝)’의 취재원(取材源)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9, 2023, 173-211면; 권은, 「사상 통제의 매커니즘과 전향작가의 망탈리테: 김남천의 〈속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8, 우리말글학회, 2023, 315-343면.

8)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김남천과 근대초극론」,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367-378면.

9) 이해진, 「근대의 초극 혹은 근대문학의 종언: 김남천의 「경영」, 「맥」, 『낭비』 연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1, 국제어문학회, 2007, 78면.

소설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의 소설에서 ‘장소는 이미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위치이기보다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것들, 그래서 함께 통합되어 새로움을 구성하게 되는 것들이 만나고 분리되는 지점’이다.¹⁰⁾

특히, 세 작품은 김남천이 풍속론을 발표한 이후 연재되었다. 김남천은 총동원체제가 구축된 1938년 이후 ‘풍속’에 관한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풍속은 ‘제도’를 말하는 동시에 ‘제도의 습득감(習得感)’을 의미한다. 그는 ‘경제·정치·문화현상을 일괄할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현상인 풍속을 그 자체로 파악하려는 인식이 구체화될 때, 문학적 표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¹⁾ 또한, ‘과학적 개념이나 세계관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문학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도 도덕을 일신상 진리로 파악하여 그것을 풍속 속에 끌고 들어가야 한다’고 단언했다.¹²⁾

이에 따라 김남천의 ‘풍속’은 도덕과 연관된 개념이자, 소설 창작방법론을 갱신할 지점으로 규정되었다.¹³⁾ 또한, ‘모랄-풍속-관찰’로 이어지는 김남천의 문학적 탐구는 전쟁 효율성이 삶의 모든 차원을 회수해 가는 혼란 속에서 형성·변형되어 가는 다양한 신체들을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세계와의 감각적·의식적·권력적 관계 속에 움직이는 ‘자기’들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의미화되었다.¹⁴⁾ 특히 김남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단독성을 지닌 ‘나’로

10) 도린 매시,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140면.

11) 김남천, 「일신상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 4. 22.

12) 김남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로만 재고에 대한 일 작가의 각서」, 『조선일보』, 1938. 9. 18.

13) 강용훈, 「전시체제 이행기의 ‘풍속’ 비판 담론: 김남천과 도사카 준(戸坂潤)의 ‘풍속’ 담론에 대한 재론」, 『사이間SAI』 2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5면.

14) 차승기, 「폐허로부터의 비전: 일제 말기 김남천의 소설론과 탈식민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136면. 차승기의 연구에서 김남천의 ‘모랄-풍속’ 개념은 과학과 문학, 사회와 개인, 보편성과 개별성, 개념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의 매개 관계를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그 매개를 개별자의 신체성 차원에서 포착하려는 시도의 산물로 주목받았다. 앞선 관점에서 볼 때, 일제 말기 김남천이 서사화한 해수욕장의 모랄-풍속은 바다를 자연·자원이거나 신체 단련의 장소로 전유하려 했던 제국의 의도를 짚고 그 장소에 깃든 총동원체제의 사상을 균열한 다양한 욕망과 감각을 정치적 차원에서 살필 여지를 제공한다.

서, 자신을 구속하는 성애화sexualization와 탈성화desexualization의 표상적 틀을 생명력에 기반하여 넘어서며 보편 인간의 외연을 넓히는 ‘인간화 human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다.¹⁵⁾ 앞선 연구들은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한 바다가 소설 속 인물과 관계 맺는 방식을 살피는 작업이 일제 말기 식민주의적 주체 만들기에 대응하는 김남천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유효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가 김남천은 자신을 ‘풍속의 관찰자이자 비평가’¹⁶⁾라고 칭함으로써 그의 문학에서 풍속이 지닌 무게감을 강조했다. 그에게 풍속이 중요한 이유는, ‘인정, 인류, 도덕, 사상이 가장 감각적으로 물적으로 표현된 풍속’ 세태 속에서 ‘모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⁷⁾ 김남천은 풍속에 대한 연구 관찰이 “디테일의 진실성”¹⁸⁾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맥락에서 풍속론을 투영한 김남천의 소설 창작은 ‘일상성과 시사성의 가운데 침투하여 대중의 생활 속에서 비판력과 정서를 배양해주고 진정한 향락을 누리게 하는 문학 본래의 정신’¹⁹⁾을 실천한 사례로 주목될 수 있다. 김남천은 해수욕장을 ‘자극적이고 현란한 풍속’²⁰⁾이라 칭했다. 본고에서는 그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둔 김남천의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시대의 모랄을 식민지 지배 담론에 대응하는 작가의 태도와 창작 방법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로써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해변의 풍속이 총동원체제의 연장선에 놓이되, 그 논리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을 드러내겠다.

15) 정우경,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5면.

16) 김남천, 「풍속시평: 풍속과 소설가 (1)」, 『조선일보』, 1939. 7. 6.

17) 김남천, 「세태·풍속 묘사 기타: 채만식 『탁류』와 안희남의 단편」, 『비판』 6권 5호, 비평가, 1938, 116면.

18) 김남천, 「세태와 풍속: 장편소설 개조론에 기(寄)함」, 『동아일보』, 1938. 10. 25.

19) 김남천, 「작금의 신문소설」, 『비판』 6권 12호, 비평가, 1938, 67면.

20) 김남천, 「낭비 (7)」, 『인문평론』 2권 8호, 인문사, 1940, 174면.

2. 자연과 육체의 대상화: 한강과 송도원의 신여성

김남천은 잡지 『여성』에 발표했던 「세기의 화문」이 “편집자의 모든 주문을 받아들리고 써보는 최초의 통속소설”²¹⁾이라 밝힌 바 있다. 남녀 간의 연애와 애육에 따른 윤리적 갈등, 조혼과 이혼 같은 결혼 문제를 다룬 이 소설을 쓸 때, 김남천이 편집자에게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작품은 소설가 ‘이경희’와 신여성 ‘하애덕’이 학예부 기자 ‘송현도’, 법과 대학생 ‘김남수’, 은행원 ‘박기훈’과 맺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연애소설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작가가 계절에 맞춰 데이트 장소를 선정하여 현실감과 광고 효과까지 노린 흔적이 역력한 소설이다. 특히, 작가가 잡지 7, 8월호에 소설을 연재하며 한강과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을 사건의 배경으로 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두 장소는 지식인 여성과 남성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욕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유하는 바가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경희는 신춘현상문예에 작품을 제출하면서 신문사에서 요청한 형식을 거슬러 낙선한 작가 지망생이었다. 경희의 작품은 신문사 학예부 기자 현도에 의해 발굴되어 잡지에 발표되고 평단의 기대를 받는다. 그녀는 스스로 냉철한 이성을 추구했고, 자신의 애인이나 남편이 될 사람의 자격조건으로 “크리티시즘, 강렬한 비판정신”²²⁾을 주장할 만큼 “지성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녀의 창작 활동과 이상형의 추구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 행사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여성을 비이성적인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데 대한 그녀의 반감은 지식과 남성의 권력을 욕망하고 다른 한편 강한 금욕주의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태도로 나아간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성과의 성적 쾌락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송현도에게 엄격

21) 김남천, 「자작(自作) 안내」, 『사해공론』 4권 7호, 사해공론사, 1938, 172면.

22) 김남천, 「세기의 화문 (1)」, 『여성』 3권 3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73면.

한 시간 규율과 예의를 강조하고, 율케의 지인으로 가까이 왕래하는 기훈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히는 현도와 친구 애덕의 관계를 의심하고 질투를 느끼게 되자 기훈을 떠올린다. 그 순간 경히가 ‘사자, 호랑이, 표범에게 안겨들어 몸을 씹혀보고 싶은 잔학한 “마조히즘”²³⁾을 느끼는 장면은 문제적이다. 마조히즘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복종이다. 복종을 즐긴다는 것은 타인의 통제에 자아를 맡기고 타인의 지배 안에서 자아를 찾고 자기 욕망을 배출하는 행위에서 쾌감을 느낌을 뜻한다.²⁴⁾ 마조히즘 충동을 느낀 경히가 기훈과 함께 찾은 곳이 한강이라는 점은 그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녀는 한강에서 기훈과 보트를 탄다. 보트 놀이는 작은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내밀함과 긴장감을 공유하게 해주며, 노를 잡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보트 위에서 경히는 ‘노를 젓는 기훈의 세련된 육체’를 보고 “간지러운 공포”²⁵⁾에 떠난다. 경히가 박기훈을 “지성”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통해 지각하는 과정은 육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 없이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깨닫는 일이자, 자기 육체에 갇혀 있는 내밀한 성적 욕망을 자각하는 일이다.²⁶⁾ 경히는 강 위에서 보트에 탄 그 순간만큼은 노를 젓는 기훈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23) 김남천, 「세기의 화문 (4)」, 『여성』 3권 6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28면.

24) 성미라, 「매저키즘: 어머니와 딸, 그 분열된 ‘사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86면.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부과된 바에 따라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은 강한 마조히즘적 충동의 발달을 돕는데, 그것은 내부로 향해진 파괴적 경향을 관능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경히의 마조히즘적 충동 역시 현도에 대한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흥빈·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155면.

25) 김남천, 「세기의 화문 (5)」, 『여성』 3권 7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26면.

26) 신정숙,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0, 2013, 24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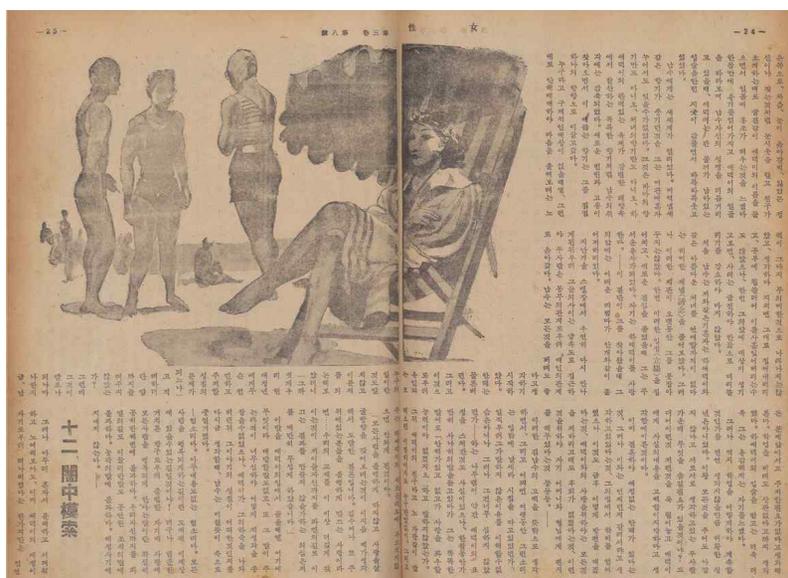
깨닫고 서둘러 육지로 돌아온다. 경히는 기훈을 만나기 전 마조히즘적 충동을 느꼈지만, 강 위에 떠 있는 보트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성적 억압의 상태로 빠르게 회귀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 파괴에도 이르지 않는다.

조선에서 보트 놀이는 서양 귀족 취미로 인식되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여겨졌다. 1920년대 초 한강 인도교 아래서 한 시간에 40~50전을 주고 타는 한강의 보트가 ‘신유행’으로 등장했고, 매년 익사자가 발생함에도 1930년대에 이색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다.²⁷⁾ 소설에서 경히는 유행을 맛보되 향락에 젖어 들지 않고 오히려 남성의 육체를 응시하며 공포감에 압도되어 자신이 추구할 권리라고 믿었던 성적 쾌감을 포기한다. 김남천은 시대의 풍속을 계절에 맞게 소설에 반영했고, 경히라는 인물의 성격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히가 한강 위에서 남성의 육체를 응시하며 연애에 대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체감했다면, 애덕은 원산 해수욕장에서 자신의 육체미를 발산하고 연애를 시작한다. 경히가 이지와 담화술 그리고 위엄성 있는 용모를 갖추었다면, 애덕은 난만한 아름다움과 여유 그리고 융통성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김남천은 애덕의 성적 매력을 발산할 최적의 장소로 원산 해수욕장을 선택했으며, 잡지 8월호에 해수욕장을 등장시키기 위해 서사적 시간으로는 가장 과거에 해당하는 애덕과 남수의 첫 만남을 회상의 방식으로 형상화했다.

애덕과 남수가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삽화가 정현웅의 그림과 나란히 배치된다. 잡지의 두 면에 걸쳐 실린 삽화(〈그림 1〉)는 해변에서 애덕과 남수가 수영복을 입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삽화는 경히처럼 보이는 여성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해변을 구경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삽화 속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도

27) 「신유행의 납량처」, 『동아일보』, 1921. 8. 22; 「그들의 봄타령」, 『조선일보』, 1934. 4. 19; 「5월의 일요」, 『동아일보』, 1938. 5. 9.



〈그림 1〉 『세기의 화문』 6화의 일부(『여성』 3권8호, 1938.)

를 쓴 채 바다를 향해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달리, 과리솔 의자에 앉은 여성은 양장을 갖춰 입고 머리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바다를 등지고 있다. 고고한 그녀의 모습은 바다와 태양을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들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삽화의 구도는 서사의 중심에서 에덕의 의식을 좌우하고, 에덕과 남수 사이의 관계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희의 존재감을 일깨운다. 또한, 삽화는 해변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식이 존재함을 환기하기도 한다.

김남천은 그 가운데 남수가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 소설을 전개한다. 삽화를 둘러싼 활자들은 남수가 에덕을 만난 이후 경험하는 사랑과 체념, 조흔한 아내에 대한 부채감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남수와 에덕의 첫 만남을 상상하고 남수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게 된다.

남수에게는 새 세계가 열리었다. 미역 냄새 같은 향기가 풍기던 것을 그는 여관에 혼자 누어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다의 향기만도 아니오, 처녀의 향기만도 아니오, 하애덕이의 탄력 있는 육체가 강렬한 태양 속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기처럼 남수의 취각에는 감촉되었다. 새로운 번민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이 애끓는 향기는 그를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²⁸⁾

소설에서 남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 애덕을 보고 “새 세계”가 열림을 느낀다. 남수는 애덕의 육체에 매료되는데, 이때 그가 느끼는 것은 “미역 냄새 같은 향기”이다. 그것은 남수에게 바다의 향기이자 처녀의 향기로, 탄력 있는 육체가 강렬한 태양 속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기로 감각된다. 여성의 몸에서 풍기는 자연스런 향기의 유혹은 노골적인 도발보다 수줍으면서도 더 풍부한 느낌을 남긴다.²⁹⁾ 남수가 애덕을 마주한 순간 미역 냄새 같은 향기를 맡는 것은 그녀의 생기발랄함과 난만함이 그 자체로 바다의 아름다움과 유비되고 자신의 정복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흔한 남수는 이내 “번민”과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이 신여성과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문한다.

남수는 조흔한 아내에게 느끼지 못했던 이성애를 애덕에게 느낀다. 그는 자신이 처가에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현실을 돌아본다. 그가 애덕을 떠올리며,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애덕의 섹슈얼리티가 자신의 ‘남성성’과 ‘이성애적 욕망’ 같은 성적 주체성 문제만이 아니라, ‘조흔 제도로부터의 이탈’, ‘경제적 독립’과 같은 사회적 자아의 문제를 의식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남수의 이러한 태도는 ‘쾌락을 취하는 데 스스로를 덕성스럽고 절제력 있는 주체로 세우기 위해 개인이 자기와의 관계를 정

28) 김남천, 「세기의 화문 (6)」, 『여성』 3권 8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24면.

29) 알랭 코르뱅, 주나미 역, 『악취와 향기: 후각으로 본 근대 사회의 역사』, 오롯, 2019, 290면.

립³⁰⁾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듯 남수의 성적 욕망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애덕은 남수와 연애 생활을 오래 이어가지 않는다. 애덕은 경희가 애인의 자격 요건으로 내세운 ‘인텔리젠스’가 남수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자, 남수에게 이전처럼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는 남수보다 지적으로 느껴지는 현도에게 끌려 현도의 아이를 갖기에 이른다. 현도를 향한 애덕의 사랑은 현도에 대한 경희의 욕망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김남천은 신여성이 느낀 욕망과 결핍이 외부에서 발원하고 그 욕망을 메울 방법조차 타자에 의해 결정되었던 상황을 그린다. 이 대목에서 소설 속 인물들이 경험했던 한강과 해수욕장의 공공성, 즉 당대 조선인이 향유한 취미와 소비의 문화 역시 서양과 일본을 모방해 조선에 수용되고 정착된 것임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의 모방 과정에서 조선인이 공포, 고통, 번민을 느꼈고, 그 감정적 동요가 인물들의 관계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세기의 화문」은 인물들이 외부 세계와 만나 갈등하고 각성하는 짧은 순간을 제시한 후, 예상 밖의 전개로 귀결된다. 애덕이 현도의 아이를 임신함에 따라 경희와 남수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때, 경희는 “어머니”가 될 애덕 앞에서 “모든 것이 권리와 주장을 상실하고, 한 보 물러서야”³¹⁾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적 자유와 사랑할 권리를 주장했던 경희의 이 같은 태도는 연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괴리는 서둘러 봉합된다.

경희는 현도와의 결합 가능성이 사라지자 잠시 “고독”과 “적막”을 느끼지만 시골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전보를 받고 다시금 “치너다운 명량한 기분”이 차오름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지적 궁지와 지혜의 길’을

3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18, 114면. 이것은 쾌락의 도덕적 실천에서 주체의 ‘자기 비판적’ 구조라 볼 수 있다.

31) 김남천, 「세기의 화문 (8)」, 『여성』 3권 10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43면.

꾸준히 닦아나가자고 결심한다. 귀환한 아버지가 제공하는 안온한 세계 안에서 경히는 다시금 지식과 정결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녀가 울케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소녀를 구경”하러 갈 계획을 세우며 명랑성을 회복하는 순간 소설은 끝난다. 그녀는 부계의 질서 안에서 오빠의 아내인 울케와 자매애를 형성하고,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으로 자기애를 실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히의 자기애는 애초부터 마조히즘과 연결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당시 자유연애 담론 안에서 과대평가된 사랑은 남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성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게 만들었다. 경히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안온함이나 지성적 남성애의 “종속이 바로 그녀가 갈망하는 성취라고 믿도록 사회화”³²⁾되었던 것이다.

경히와 애덕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각각 아버지의 딸, 그리고 어머니로서 여성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그들의 행보는 신여성이 다시 가부장제의 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방향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남천은 그가 소설을 발표했던 잡지에 서간문을 실어 자신의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보충한다. 작가는 잡지 『여성』의 「영녀(令女) 서간집」 특집에 주인공 이경히가 하애덕에게 보내는 형식의 「여행 가자는 편지」를 수록한다. 경히는 애덕에게 「월산이나 몽금포, 온천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보자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해녀를 안고 한참 딩굴고 나면 우리 빈민하는 현대 여성에게 무슨 신비로운 계시가 내릴 것만 같구나. 새로운 육체의 교훈이 있을 것만 같아”³³⁾라고 쓴다.

제주도의 해녀에게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노동의 현장이자 생활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서신의 내용은 주체가 바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바다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뜻한다. 신여성이 해녀에게 얻어야 할

32)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여성 작가와 19세기의 문학적 상상력』, 북하우스, 2022, 251면.

33) 김남천, 「영녀 서간집: 여행 가자는 편지」, 『여성』 3권 7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17면.

‘새로운 육체의 교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며 노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희열, 그러나 바다를 정복하거나 장악하려는 폭력성과는 거리를 둔 태도일 것이다. 물론 제주도의 해녀 노동을 여성 자립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는 관점은 도시 경성을 삶의 기반으로 둔 여성 인물이 제주도를 낭만화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녀가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온 것은 개항 이후 그들의 생산 양식이 공납제에서 자본제로 변화하고 활동 반경도 여러 지역으로 넓어지면서 해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정립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³⁴⁾

당시 조선에서 제주도의 해녀는 “어느 지방,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 해중(海中) 작업의 라부군상(裸婦群像)”³⁵⁾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일본이 제주 해안을 자국의 산업화 자원 생산지로 삼아 대량으로 착취함에 따라 제주도 해녀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 바다를 횡단하여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동하며 삶의 공간을 확장했다.³⁶⁾ 식민지 시대 제주도의 해녀 노동은, 토지 생산성이 낮은 제주도에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 섬의 고립적,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장 먼저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³⁷⁾ 이것은 공동체와 여성의 위상 변화를 이끄는 데에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과 자매애가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해녀들의 이미지는, 바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바다를 소외시키지도 않는 인간상을 기저에 둔다. 자연-환경을 관광지화하지 않으며 경제적 주체로 거듭난 해녀를 경희와 애덕의 이상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김남천은 ‘편집인의 주문을 반영한 통속소설’의 미진함을 보완한다.

34) 장혜련, 「제주 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 주체」,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96-201면.

35) 「해녀 삼백여 명」, 『조선일보』, 1937. 4. 10.

36) 장혜련, 앞의 책, 202면.

37)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해녀 노동과 제주도 경제에 관한 연구」, 이성훈 편, 『해녀 연구총서 4』, 학고방, 2014, 48면.

3. 불균등하게 분배된 취약함: 월미도에 간 조선 여급

김남천이 「세기의 화문」에서 자연과 육체의 대상화를 형상화하되 소설이 연재되었던 『여성』지에 경희와 애덕의 편지를 실어 가부장제에 환원되지 않는 여성상을 제안했다면, 「바다로 간다」에서는 소설이 연재되었던 일간 신문의 시의성과 시사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남천은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와의 관계망 안에서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여성-자연-식민지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의식에 현실감을 더한다. 「바다로 간다」는 표제에 바다를 내세웠지만, 바다는 소설의 마지막에야 등장한다. 경성의 북촌을 주된 배경으로 삼은 이 소설은 주인공 최영자가 바다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소설의 제목을 고려할 때 독자는 그녀가 바다로 왜 가는가, 바다에서 그녀는 무엇을 마주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김남천은 작품에서 바다를 환기하는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열망하는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 소설은 「군수품 경기와 광산열이 뒤설킨 종로의 뒷골목」³⁸⁾을 배경으로 한다. 본정 중심의 카페문화가 종로를 중심으로 한 북촌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카페는 '조선인'의 상권으로 알려져 있던 종로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³⁹⁾ 종로 카페 산업의 번성은 '제국의 브로커'들의 손에 의해 기획되어 조선인들의 상권으로 확장해 들어가는 대자본의 이동 및 대경성의

38) 김남천, 「바다로 간다 (1)」, 『조선일보』, 1939. 5. 2.

39) 박진경·미야지마 요코, 「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일본인 사회, 카페/여급, 경성」, 『한국여성학』 36(3), 한국여성학회, 2020, 133면. 카페의 종로 진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꼽힌다. 첫째, 신흥 지역인 종로는 본정에 비해 아직 업체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둘째, 종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경성부 당국의 의도와 맞물려 다른 지역보다 영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많은 인원이 일하는 조선총독부 청사가 1926년 광화문으로 이동했으나 본정에 비해 종로 관내 영업자 수는 그 5분의 1 수준인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구축과 결을 같이하는 것이었다.⁴⁰⁾ 소설에서 주인공 최영자가 일하는 살롱 ‘미라(美羅)’도 종로에 자리 잡고 있다. 살롱 ‘미라’는 조선인 남성들이 남춘 일대 카페를 돌다가 ‘북촌 동네에 가서 한바탕 입심을 놀리기’ 위해 찾은 곳이다. 종로의 카페는 전쟁열과 투기열에 힘입어 벌어들인 돈을 여급의 팁으로 줄 수 있는 조선 남성들을 흡수하는 장소로 묘사된다.

살롱 미라에서 ‘에이꼬’로 불리는 최영자는 십여 년 전 활동사진 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서른세 살의 여급이다. 당시 카페는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여성과의 친밀감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공간이었다. ‘여급이 접대하는 카페는 연애 상품과 예로 서비스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흥장으로 유행’하였다.⁴¹⁾ 1930년대 ‘경성 내 약 1천 여급군의 나이는 18세부터 30세 이하까지가 대부분’⁴²⁾이었다. 그러므로 김남천이 서른세 살의 여급 영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소설에서 여급의 나이는 여성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노골화되며, 이는 금광업자 강 주사와 경성부 부회원의 첩 성경숙이 영자에게 금광업자 천사익의 후처 될 것을 제안하는 대목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김남천은 나이 든 여급 최영자를 통해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 결혼과 젊음에 대한 동경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바다로 간다」는 김남천이 이 작품을 연재하기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단편소설 「오월(五月)」, 그리고 「오월」의 연작에 해당하는 「항민(巷民)」⁴³⁾과 「어머니」에서 기생이 된 누이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어린 남동생의 관점으로 소설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채를 띤다. 앞선 연작이

40) 위의 책, 144면.

41)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 1930년대 여급의 ‘연애’ 매매와 경찰의 성매매 관리 정책」, 『여성과 역사』 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113면.

42) 本誌 記者, 「女給稼業を語る」, 『朝鮮及滿洲』 303, 京城 朝鮮及滿洲社, 1933, 114頁.

43) 이 소설은 최근에 출간된 김남천 작품 선집들에서도 「항민(巷民)」이라 언급되었지만, 원문(『조선문학』, 1939. 6.)에 ‘항민(巷民)’으로 표기되었으며, 작품의 내용상으로도 ‘항민(巷民)’이 적합하다.

성을 팔아 돈을 버는 여성인 기생에 대한 주변인의 시선을 드러낸다면, 「바다로 간다」는 여급에 대한 타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급 자신이 느끼는 욕망과 소외감 그리고 불안 등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자가 자신의 미래와 욕망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는 ‘김준호’의 등장 때문이다. 그녀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철도 건설 기술자 준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의 연애와 결혼을 욕망하게 된다. 하지만 ‘미라’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 ‘몽자’ 역시 준호에게 마음을 둔다. 두 여성에게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당시 “하느님 맛잡는 기술자”⁴⁴⁾를 직업으로 둔 준호가 지닌 남성적 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급이 남성에게 제공하는 직업적 서비스와 연애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그들의 노동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카페 여급은 ‘자유연애’의 욕구를 돈 받고 실현시켜 주는 존재였으며, ‘가짜 연애’를 ‘진짜’에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서 의복 및 화장품, 장신구, 구두를 구매하거나 서양 머리를 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⁴⁵⁾ 영자가 젊어 보이기 위해 백화점에서 화장품과 옷을 구매하고, 자신보다 어린 몽자를 의식하면서 그녀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장면은 그녀가 준호와의 ‘진짜’ 연애를 열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준호를 향한 영자의 마음은, 덕수궁의 구관조가 준호 옆의 영자를 보고 ‘애인(고이비도)’이 아닌 ‘오까아상(어머니)’으로 불러 그녀를 실망시키고 자기의 나이 듦을 수치로 여기게 하는 장면과 이어진다. 정우경이 적절히 지적했듯 이 작품에서 ‘나이는 여성을 탈성화하는 위협으로 작동하며, 성애화뿐 아니라 탈성화를 통해 자기 가치를 평가받으며 인간 범주에서 벗어날 위협에 처했던 여성들의 모습을’⁴⁶⁾ 드러내는 요소이다.

준호와 영자 사이에는 노동의 불균형과 생물학적 편향이 작동한다. 소

44) 김남천, 「바다로 간다 (28)」, 『조선일보』, 1939. 6. 7.

45) 박정애, 앞의 책, 117면.

46) 정우경, 앞의 책, 57면.

설에서 기술자인 준호의 일은 합리적이며 계획되고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여급인 영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산책은 영자에게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새로 산 카메라로 사진 취미를 즐기는 준호에게 여급 영자는 피사체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남성 노동자(인간)와 여성 노동자(자연) 사이의 지배관계, 착취관계가 감추어져 있다.⁴⁷⁾

더욱이 이 소설에는 당시 카페 여급이 풍기문란뿐 아니라 세균성 질환으로 사회를 더럽히는 잠재적 오염체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⁴⁸⁾ 몽자가 영자의 집에 찾아와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하러 가자는 장면이 그러하다. ‘가게’로 접종 통보가 왔다는 몽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여급에게는 여러 층위의 생명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 권력은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두 가지 극을 중심으로 생명을 보장, 유지, 강화, 조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⁴⁹⁾ 지배 권력은 성병과 장티푸스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남성과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여급의 몸을 취약하고 두려운 것으로 만든다. 취약하고 두려운 느낌은 여성의 몸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이들이 공적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고 사적 공간에 지나칠 정도로 머물게 만드는 이동성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⁵⁰⁾

이러한 남녀 사이의 권력관계를 소설의 제목인 ‘바다로 간다’와 연결시킬 때, 이 작품의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된다. 경성, 평양, 만주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일하는 준호와 달리, 영자는 경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

47)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갈무리, 2022, 122면.

48) 1934년 9월에 발표된 ‘카페영업단속규칙표준’에 따라 카페 여급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호적등본이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警務局長, 「カフェー營業取締內規標準ニ関スル件」, 『警務彙報』 342, 朝鮮警察協會, 1934, 145-146頁 참고.

49)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159면.

50)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159-161면.

공 최영자는 북촌의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그녀가 강 주사에게 천사익의 후처될 것을 제안받는 곳은 “대륙”이라는 시국적 간판을 내건 종로의 찻집이다. 그곳에 모여 앉은 “뿌로커”들에게 “광산과 토지와 정어리와 조기 때”는 금과 화폐의 위력을 가져다줄 “거대한 꿈”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자연은 “치열한 욕망과 적극적인 포부와 웅거하고 치밀한 권모술책”⁵¹⁾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고임에 틀림없다.

조선총독부 조선철도국이 조선을 소개하기 위해 1936~1938년에 발행한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을 보면, 두만강 하구에서 부산에 이르는 조선의 해안은 “물고기로 인한 이익이 무진장한” 곳으로 광고되어 있다.⁵²⁾ 하지만 조선 해안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정어리 어획 문제는 1930년대 초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어민의 생활 문제와 직결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⁵³⁾ 이태준은 소설 『화관』에서 정어리 공장에서 일하는 목사와 음악 교사를 등장시켜 종교적 절제와 예술적 이상을 추구했던 두 사람의 노동을 타락의 일면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그에 반해 김남천의 서사는 정어리 어획 문제를 보다 복잡한 관계망 안에서 쟁점화한다. 김남천은 소설에서 자연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브로커와 중년의 사업가에게 여금을 중매하려는 브로커를 겹쳐 놓는다. 이러한 소설적 구성은 ‘자연·여성’의 희생을 토대로 ‘이익’을 취하는 남성, 즉 착취적이고 불평등한 종속 관계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이 4회차를 맞았을 때, 소설이 연재되던 『조선일보』에는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간다”라는 제목의 기획 연재 기사(1939. 5. 5~7)가 실린다. “조기 어장의 광조보(狂躁譜)”라는 부제를 단 이 기사는 조기 어장을

51) 김남천, 「바다로 간다 (11)」, 『조선일보』, 1939. 5. 16.

52) 朝鮮總督府 鐵道局 編, 『半島の近影』, 大阪: 日本版畫印刷合資會社, 1936, 56頁.

53) 일기자, 「동해 어민의 생활 문제」, 『동아일보』, 1932. 1. 7; 박형수, 「온유비(鱸油肥) 문제 과거와 현재 급 장래」, 『조선일보』, 1935. 7. 20; 「소어민의 자립책으로 소자본 어업 장려」, 『조선일보』, 1938. 2. 6.

찾아간 어부들의 생활과 전국에서 몰려든 타향 어부로 인해 원주민과 섬이 변해가는 실상을 담고 있다. 김남천은 그로부터 열흘쯤 후에 자신의 소설에 정어리와 조기 때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모여든 다방을 그리고, 그곳에서 영자가 그들을 보며 유괴범 ‘하윤명’을 겹쳐보는 장면을 형상화한다. 당시 하윤명은 백여 명의 소녀를 데려다가 정조를 유린하고 유곽에 팔아넘긴 사건으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다.⁵⁴⁾

현실의 사건에서 소설의 소재를 취하곤 했던 김남천은 두 어절만 빼면 소설의 제목과 같은 어업 관련 기사,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윤명의 인신매매, 그리고 여급을 중년의 사업가에게 후처로 중매하려는 브로커의 모습을 겹쳐 놓는다. 일련의 사건은 자연과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작가는 현실에서 일어났던 투기와 유괴의 문제성을 경유해 여급 영자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러한 사건 겹쳐 놓기에는 ‘사실을 사실 이상으로, 세태를 세태 이상으로, 현상을 현상 이상으로 파악함으로써 풍속이 비로소 문학적 관념이 된다’⁵⁵⁾고 믿었던 김남천의 작가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강 주사의 제안을 거절한 영자는 “생활의 방도”를 찾되, 종로가 아닌 ‘명치정으로 가서 새 “직장”을 구한다.’⁵⁶⁾ ‘조건도 나쁘지 않고 손님도 깨끗한 축들이 만히 모이는 “빠”에 취직한 그녀는 바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 하루 쉬기로 한다. 그날 그녀는 준호의 결혼 청첩장을 받고 허탈함과 쓸쓸함, 울고 싶은 심정을 느낀다. 영자의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준호를 향한 영자의 애정과 욕망이 연애 감정에 그치지 않고 준호와의 결혼으로까지 이어져 있었음을 드러낸다. 기술자 준호의 직업적 안정성에 의지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영자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도회에 대한 환멸과 고향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54) 「유괴한 백여 처녀 정조를 강제 유린」, 『동아일보』, 1939. 3. 15.

55) 김남천, 「세태와 풍속: 장편소설 개조론에 기(寄)함」, 『동아일보』, 1938. 10. 25.

56) 김남천, 「바다로 간다 (34)」, 『조선일보』, 1939. 6. 14.

영지는 다시 험착한 도회의 나(晝)를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다. 고향이, 그립다. 원산서 자라던 생각이 난다.

그는 그때에 문득 바다를 생각하였다.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주으며 놀던 정경이 머리에 떠오른다.

(바다. 바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바다를 잊고 살아왔던가.)

바다에 몸을 잠그고 쉽다. 거센 물결을 마주 밧고 별거숭이 몸뚱아리로 파도를 구슬처럼 깨트려 버리고 쉽다. (중략)

이윽고 한 시간만에 차는 인천에 다었다. ‘빠스’가 만원이어서 영지는 ‘택시’를 하나 잡아탔다. 차는 쏘살처럼 축저를 다라간다.

“조탕 잇는 데 말고 남쪽으로 가주세요.”⁵⁷⁾

영지는 ‘험착한 도회의 낮’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다. 그리고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놀던 정경을 떠올린 후 인천행 기차를 탄다. 기차에서 그녀는 두 달 동안의 일을 떠올리며 성경숙, 강 주사, 몽자, 준호의 환영을 날려버린다. 영지는 월미도로 향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조탕”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한다. 월미도의 ‘대조탕’은 1923년 만철이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섬 북부 언덕에 수영장을 병설한 입욕 시설이다.⁵⁸⁾ 월미도의 북단부에 세워진 조탕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영지가 섬 남쪽으로 향했던 것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휴양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 고향 원산에서 놀았던, 개발 이전의 바다를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없어 한적한 바다에서 영지는 모래, 바람, 파도, 미역 냄새를 마주한다. 도시를 빠져나와 바다 앞에 선 영지는 해방과 자유를 느낀다. 이때 그녀가 감각하는 바다는 그녀의 어린 시절 향수와 맞닿아 있다. 바다

57) 김남천, 「바다로 간다 (35)」, 『조선일보』, 1939. 6. 15.

58) 다케쿠니 토모야스, 앞의 책, 140면.

앞에서 영자는 과거의 자신과 조우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삽화가 정현웅은 소설의 마지막화 삽화(〈그림 3〉)에서 영자가 도시를 벗어나 바다의 거센 파도를 마주한 장면을 역동적으로 그려내 독자가 영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상상하고 인물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게 이끌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준호의 연락을 초조히 기다리다가 준호로부터 결혼 청첩을 받고 낙심했던 모습(〈그림 2〉)과 대조적이다.



〈그림 2〉 김남천의 「바다로 간다」 34화 삽화 (『조선일보』, 1939. 6. 14.)



〈그림 3〉 김남천의 「바다로 간다」 35화 삽화 (『조선일보』, 1939. 6. 15.)



〈그림 4〉 이태준의 『화관』 123화 삽화 (『조선일보』, 1937. 12. 12.)



〈그림 5〉 한용운의 『박명』 113화 삽화(『조선일보』, 1938. 10. 7.)

또한, 〈그림 3〉에 나타난 영자의 모습은, 바다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던 일제 말기 다른 작가의 신문 연재소설과도 차이를 보인다. 가령, 〈그림 4〉와 〈그림 5〉는 이태준과 한용운의 소설이 보여주었던 바다의 이미지이다.⁵⁹⁾ 이태준은 『화관』(1937~1938)에서 소설 초반에 송전 해수욕장을

에로티시즘과 로맨스의 휴양지로 그렸다. 그러나 말미에는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을 주인공 동옥과 인철의 ‘연애 감정이 계몽의 열정과 부딪히지 않고 결합하는 순결한 장소, 즉 아름다운 자연 속 비인간적 순결성을 환기하는 공간⁶⁰⁾으로 묘사했다. 이 때문에 〈그림 4〉에서처럼 바다는 주인공 이외에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하고 정결한 세계로 대상화된다. 한용운의 『박명』(1938~1939)에서 바다는 주인공 순영이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곳⁶¹⁾이다. 특히, 이 소설에서 인천 월미도는 순영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본 세상의 축소판이자, 대철과 해후하여 색주가에서 현모양처의 삶으로 옮겨가기를 열망하는 분기점에 해당한다. 〈그림 5〉에서처럼 『박명』 속 바다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장소이고, 순영이 그들을 관찰하며 진정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김남천 소설에서 영자는 『박명』의 주인공 순영이 찾았던 월미도의 조탕 근처를 피해 인적이 드문 남쪽으로 향한다. 영자는 팔을 벌려 바다를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미역 냄새가 풍기는 바람을 뱃속까지 심호흡하며 해안을 걷다가 준호의 결혼식에 “축전” 칠 생각에 이른다. 영자는 준호에게 보내는 축전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다 기입하지 않기로 한다. 발신인이 정확하지 않은 편지는 발신인 그리고 서신에 담긴 의미를 오직 발신인만 알 수 있다. 그녀가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내용상 결혼 축하 인사를 담고 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선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바다를 찾은 영자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고 싶은 존재 전이의 욕망’

59) 두 작가의 작품에서 여주인공은 공통적으로 바다에 빠져 남성 인물에게 구조된다. 이 때문에 바다와 접촉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이때 바다는 인물과 상호작용하기보다 처음 접하는 공간이 주는 낯설, 끝을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이미지가 강하다.

60) 김주리, 앞의 책, 2009, 198면.

61) 이향순, 앞의 책, 147면.

을 느낀다.⁶²⁾ 그녀는 배우에서 여급이 된 자신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과 낙인에 갇히기보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내어나가기로 한다. 영자는 준호에게 품었던 연애 감정과 그와의 관계에서 꿈꾸었던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열망들을 떨쳐낸다. 이때, 영자가 월미도 남쪽을 찾아가 바다를 감각하는 행위를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해온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작가가 자연-자궁-여성의 타고난 (재)생산 능력과 같은 관념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영자는 인천이 아니라 고향인 원산으로 향했어야 마땅하다. 바다를 묘사하는 김남천의 관점은 일정 부분 자연을 낭만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림 3〉에서처럼 영자가 자연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함을 보여줌으로써 김남천 소설은 바다가 단순히 정신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모래, 바람, 햇빛 등으로 그녀의 육체에 흔적을 남길 친밀함의 영역임을 일깨운다.

영자의 자기 결정은 인간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주체성과 자유의 영역인 독립성을 가시화한다. 그녀는 부회원의 첩이 된 성경숙처럼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노동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바다 앞에 단독자로 선 영자의 모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착취와 소비의 욕망과 거리를 둔 채, 자신에게 내재한 인간적 열망을 직시하고 바다 그 자체를 오감으로 감각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에서 여가 공간으로서 해변의 발명은 자기 돌봄의 새로운 양식뿐 아니라 감수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포함하게 된다.⁶³⁾

62) 정호용, 『김남천: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길사, 2008, 65-67면. 타인에게 복속된 몰주체적인 '나'가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나'는 지금까지 「경영」과 「맥」 연작의 주인공 '무경'을 통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는 프로 소설사 전체와 맞서는 전복적인 이념소로 가치 평가되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의 나'라는 의미소는, 혁명이라는 '절대선'에 복무하는 문학이자 '절대적인 성격의 자기동일성을 추구했던 프로 문학의 논리에 의해 배제된 것이었다. 우리는 김남천이 '무경' 이전에 「바다로 간다」의 '영자'를 통해 프로 문학의 절대적 자기동일성을 벗어나 다시금 일제 말기의 황도 사상이 표상하는 절대선의 시대를 거슬러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3) 해변은 일상을 벗어난 시간적 이탈뿐 아니라 신체적 생명력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점

다만, 소설에서 영자가 월미도를 떠나 경성으로 다시 돌아가 남촌의 여급으로 일한다는 점은 당시 여성 노동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그녀는 해변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이는 노동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영자는 과거의 자기 삶을 인정한 상태에서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 영자가 찾아간 바다는 ‘생물학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현실로부터의 피난처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공간이면서 다른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불안정한 공유지’⁶⁴⁾이다. 그 바다 앞에서 이루어진 영자의 자기 갱생과 그 한계는 지식 노동과 감정 노동을 둘러싼 젠더 위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누가 일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꿈꿀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분배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김남천이 그려낸 바다의 풍속은 식민지 조선의 ‘과개발’된 바다와 남성에게 ‘중속된’ 여급의 삶을 통해 여성-자연-식민지의 굴레를 환기하고, 착취의 영속적 기초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동맹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게 이끈다.

4. 신체제와의 불화: 낭비의 생활, 부재의식의 문화

김남천이 『인문평론』에 연재한 미완의 장편소설 「낭비」는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작품의 전반부가 전개된다. 이 소설은 「바다로 간다」의 주인공 영자가 고향 원산에 갔어도 그녀가 그리워하던 바다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적했던 원산은 일본의 압력으로 1880년 개항을 맞은 후 항구도시, 휴양도시로 발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원

에 특징이 있다. 가장 쉬운 해변의 움직임 중 하나인 일광욕을 즐기는 자세조차도 전신을 빛과 열, 땅에 대한 감각적인 표면으로 바꾸려는 시도이자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이해될 수 있다. Hannah Freed-Thall, op. cit., p. 24.

64) Ibid., p. 2.

산은 외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창구, 지나가는 장소, 임시적 주거지로 변화했다.

1923년 해수욕주식회사가 조직된 이후 원산 송도원 해변에는 별장을 비롯한 숙박 및 오락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30년대 말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세운 별장, 호텔, 여관, 텐트에 하루 평균 1천 명이 넘는 피서객이 머물렀다.⁶⁵⁾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인 ‘별장’ 역시 그 유행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매년 7-8월이 되면 신문에는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을 찾아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현상이 기사화되었다. 이 소설이 연재되던 1940년 8월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은 하루 평균 2만여 명에 달하는 해수욕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⁶⁶⁾ 1938년 기준 원산의 인구가 약 6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여름 원산은 원주민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피서객을 맞이하였던 셈이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관광객은 거리와 분리에 의존한 시선으로 바다를 경관의 요소로 축소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려 해변을 둘러싼 갈등을 가려 버린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했던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송도원 해수욕장은 “해안이 흰 모래밭에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조선의 하마테라(濱寺)라고 불릴 만큼 설비가 완벽된”⁶⁷⁾ 곳으로 홍보되었다. 소나무 숲에서의 캠프, 깨끗한 바다에서의 수영은 해수욕장에서의 피서를 건전한 활동으로

65) 1923년 매일신문(毎日新聞)사 사장 및 기타 유지의 발기와 만철의 차관으로 원산해수욕주식회사가 조직되었다. 이후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에는 별장 및 제반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이는 생활이 여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인식되었다. 1937년 8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매일 평균 해수욕주식회사 별장에 2백 명, 개인 별장에 60여 명, ‘캠프’이 50장으로 2백여 명, 송도원호텔 및 송학관에 매일 90여 명, 그 외에 송중리, 송하리 여관까지 포함하여 1천 수백 명에 달하는 피서객이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원산해수욕장」, 『조선일보』, 1923. 6. 20; 「경원선의 여름을 차차: 원산 송도원」, 『동아일보』, 1926. 9. 10; 「천수백 명을 돌파, 바다! 원산에 피서객」, 『동아일보』, 1937. 8. 9.

66) 「송도원의 욕객」, 『조선일보』, 1940. 8. 2.

67) 朝鮮總督府 鐵道局 編, 『半島の近影』, 大阪: 日本版畫印刷合資會社, 1937, 46頁.



〈그림 6〉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1937)에 소개된 원산 '송도원 캠프'와 '송도원 해수욕장'

인식하게 했다. 여기서 하마테리는 1873년 12월에 개설된 오사카의 하마테라 공원을 지칭한다. 이 공원은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했으며,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가 1906년에 해수욕장을 개설함에 따라 오사카 중심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피서지, 보양지로 기능했다.⁶⁸⁾

68) 綿貫慶徳, 「明治後期から大正期における大阪毎日新聞社の浜寺海水浴場経営に関する史的考察: 新聞販売ターゲットとしての新中間層に着目して」, 『体育史研究』 21, 体育史学会, 2004, 4-5頁. 러일전쟁 이후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에서는 다양한 체육·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메이지 39년에 개설된 하마테라 해수욕장은 시대에 적합한 행사 개최, 정신 수양, 체육 장려에 이바지하고, 민중적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대문화의 소산인 도시 밀집군의 보건 및 향락을 위해서 공헌한다고 회고되었다.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는 하마테라 해수욕장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면서 공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소개하며 조선의 명소를 일본의 명소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특정 지역을 일본인이 상상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지리를 제국 일본에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러일전쟁 이후 정신 수양과 체육 장려, 민중적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광받았던 하마테라 해수욕장의 공식적 이미지는 총동원체제 하의 원산 해수욕장에 투영될 수 있었다. 이로써 1920년대부터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지원하에 개발이 시작된 원산의 자연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관광, 투자, 휴양이 가능한 공익시설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미지는 제국의 식민지 개발, 전시하 총동원체제의 합리화로만 수렴될 수 없었다. 당시 신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해변에서의 음주, 도난, 갈취, 사기, 폭행, 간통, 자살, 익사 등 각종 사건 사고들은 휴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일탈 욕망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1940년 8월에 열린 ‘팔도 풍물(風物) 좌담회’에서 조선일보사 원산 특파원이 했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송도원 해수욕은 ‘원산 수산물보다 명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송도원 해수욕장의 의의로 “과거에는 피서지였으나 지금은 체육도장으로 유용”하며, “풍기물란이란 없”다고 단언한다⁶⁹⁾. 이 같은 그의 발언이 “조선일보가 역사적 사명을 마치고 국책에 순응하여 폐간”하는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각 지방 특파 기자들의 ‘팔도 풍물 좌담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여기에는 자기 지방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풍속 통제의 삼엄함 속에서 송도원 해수욕장이 문란한 곳으로 낙인찍히는 현상을 막으려는 기자로서의 방어기제와 검열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맥락에서 볼 때, 소설 「낭비」는 송도원 해수욕장을 둘러싼 건강과 퇴폐의 이분법적 담론 구조를 의식하며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낭

69) 「기자로서 본 내 지방: 본사 특파원 좌담회」, 『조선일보』, 1940. 8. 11.

비」는 더운 여름, 원산 송도원의 별장에서 논문을 쓰던 ‘관형」이 탈의장의 물 펌프 소리를 듣고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설은 남성이 지각한 해변의 소리가 시각·촉각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전면화한다. 소설에서 해변은 예상치 못한 쾌락과 우연성의 장소, 색다른 친밀감과 부적절한 관계 지향성의 영역으로 형상화된다. 김남천은 관형을 앞세워 그러한 해변의 풍속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에서 인물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식의 문제를 형상화한다. 그런 맥락에서 「낭비」는 「세기의 화문」이나 「바다로 간다」가 보여준 작가의 문제의식에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학습되고 실천된 자기 정립이 어떻게 중단되고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김남천은 주어진 시공간에 정주하길 거부하는 인물의 태도를 부각한다.

이 작품은 관형이 논문 주제로 삼았던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과 관형의 자기 인식이 ‘서구 근대의 사회주의적 전망과 제국의 동양론 모두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김남천의 의식과 일치」하며,⁷⁰⁾ 더 나아가 관형의 부재의식이 ‘헨리 제임스 식의 심리주의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방향성을 띠는 점에서 가치 평가되었다.⁷¹⁾ 이 소설이 관형의 논문 쓰기와 논문 통과 여부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가의 사상적 변화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살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11회차로 중단된 이 소설이 7회차에 이르기까지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두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다.

김남천은 관형의 논문 집필 의지와 그에 대한 번민을 극대화하기 위해 논문 집필을 방해하는 요인을 설정해 두었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70)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14~217면; 장성규,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회, 2014, 11~12면.

71) 배하은, 「문화적 식민지의 풍경과 지식인의 ‘부재의식」,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345~349면.

바로 ‘해수욕장의 풍속’이다. 소설의 제목 ‘낭비’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본이 중일전쟁 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해 조선인의 일상을 재편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비상시국 국민 생활 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의식주, 의례, 사회 풍조와 관련한 실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오락문화와 유흥장소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풍속 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퇴폐, 허영, 비생산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신체제의 이념을 내면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⁷²⁾ 풍속 통제의 기본 이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사회 정화와 행복한 가정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었다.⁷³⁾ 하지만 「낭비」는 휴양지에서의 혼외정사, 미성년자의 음주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 이관형은 여동생 ‘관덕’, 남동생 ‘관국’ 그리고 여동생의 친구 ‘김연’, 친척 아저씨 ‘윤갑수’와 함께 송도원 해수욕장의 별장에 머문다. 그곳에서 강사 채용 논문을 쓰는 중에 관형은 연이에게 사모의 마음을 느끼고, 옆 별장에 놀러온 미망인 ‘문난주’에게는 강렬한 매혹을 느낀다. 김남천은 관형-난주-연이의 삼각관계뿐 아니라, 여류소설가 ‘한영숙’과 고등학생 관국, 관형의 친척 아저씨인 윤갑수와 옆 별장 주인인 ‘백인영’의 첩 ‘최옥엽’의 불륜 관계 등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과 성적 욕망의 문제를 빠르게 전개한다. 김남천은 7회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6회차까지의 소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해수욕장 주변에서 형성된 이들의 관계를 “산란스러운 풍기”⁷⁴⁾라 명명했다.

7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 國民精神總動員』, 京城: 朝鮮總督府, 1940, 33-39頁;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336-338면; 권명아, 『음악과 혁명』, 책세상, 2013, 110면.

73) 위의 책, 2013, 95면.

74) 김남천, 「낭비 (7)」, 『인문평론』 2권 8호, 1940, 인문사, 173면.

‘산란스러운 풍기’에는 전시체제하에서 조선 청년과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인간상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중학생인 난주의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후 학교 선배에게 깃듯이 인사하는 모습은 흡사 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짙은 화장과 양장을 했던 난주가 아들이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온 날,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는 것 역시 소박한 어머니상을

관형은 이 산란스러운 풍기의 주된 관찰자이지만 각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의 관계 속에 빠져들거나 개입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관형은 연이가 자신보다 남동생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눈치채자, 자신이 연이나 난주에게 느끼는 감정적이고 성적인 끌림이 논문 작성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을 떠난다. 피서지인 송도원 해수욕장은 경성에서 거주하던 인물들이 주거지를 벗어나 소비, 오락, 연애, 향락을 즐기는 장소이며, 논문 집필이라는 이성적 활동에는 부적절한 곳으로 그려진다. 이 미완의 장편소설 전반부에 전경화된 해수욕장의 이미지는 바다에서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탈, 특히 관형의 감정과 의식에 일으키는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변과 별장이 빚어내는 모든 풍속은, 예정을 세워 놓은 그의 생각을 흥겨워 버리고, 그의 눈앞을 어즈럽게 한다.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털어 버리고 산속으로 피하여 가는 날 아침, 그러나 사람의 몸뚱아리가 잠기지 않은 바다의 표정은 그대로 아름답고 청신스럽기만 하니 어인 까닭일까. 바다가 더럽다든 몇일새의 제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동요를 느낀다. 태양을 반사한 붉은 바다, 미역 냄새가 풍기는 듯한 쌍꺼튼 파도의 내음새……. 그는 다시 모래에서 일어났다.

‘나는 산속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거기서 다시 헨리·젠크스의 위대한 정신과 싸워야 한다.’⁷⁵⁾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해변과 별장이 빚어내는 모든 풍속”은 관형이 논문을 쓰며 성취해야 할 “헨리·젠크스의 위대한 정신”과 싸우는 일을 방

보여준다. 김남천은 해수욕장이라는 배경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요청된 학생상이나 어머니 상뿐 아니라 그 강요된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경을 함께 드러낸다.
75) 김남천, 「낭비 (4)」, 『인문평론』 2권 5호, 1940, 인문사, 214~215면.

해한다. 그러나 김남천은 피서지 문화를 서사화하면서도 바다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향유하는 인간이 바다를 더럽히고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바다를 더럽다고 생각했던 관형은 원산을 떠나는 날 새벽, ‘태양에 빛나는 바다’, ‘미역 냄새가 풍기는 파도의 내음새’를 감각하면서 바다를 아름답고 청신하게 느낀다. 이로써 김남천은 해수욕장을 수식하는 건 강성과 퇴폐성이 바다의 속성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고 자본화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규율임을 일깨운다. 바다를 예민하게 감각하는 관형은 “바다의 표정”을 보고 동요를 느끼지만, 그는 낮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일 해수욕장을 떠나기로 한다. 별장에 머물며 호화로운 여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제국 일본이 만들어놓은 휴양지와 휴양 생활을 모방하며 그것에 취해 자기의 일을 망각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⁷⁶⁾

해수욕장을 떠난 관형은 양덕 산골로 이동하여 결국 논문의 초고를 완성한다. 1920년대부터 개발되어 대중적 휴양지가 된 원산 해수욕장에 비해 양덕은 교통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장소이다. 하지만 관형은 양덕에 “무엇보다 자극적인 현란한 풍속이 없다는”⁷⁷⁾ 점에 만족을 느끼며 양덕행을 결정한다. 그곳의 궁벽한 산골에서 이루어진 덕형의 논문 집필은 마치 절제와 고독의 수행처럼 형상화된다. 논문의 초고를 완성한 덕형은 양덕을 떠나 경성으로 향하며 양덕의 온천 대탕지를 끼고 있는 구룡각호텔에 들른다. 그는 그곳에서 ‘연이’를 우연히 만나 설렘을 느끼지만, 그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한다. 대중적인 휴양지에서 사랑과 욕망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덕형은 타락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76) 「낭비」에서 ‘관형’이 보이는 행보는 「경영」(『문장』, 1940. 10)과 「맥」(『춘추』, 1941. 2)의 연상선에서 읽힐 수 있다. 「낭비」는 ‘관형’이란 인물이 욕망과 좌절이 혼재된 ‘낭비’의 세계를 탈출하되, 갈등과 고통이 해소된 오시형의 다윈사관의 세계 역시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납득하게 해준다.

77) 김남천, 「낭비 (7)」, 『인문평론』 2권 8호, 1940, 인문사, 174면.

이처럼 관형은 해수욕장과 온천의 난잡한 풍속 가운데서 자기분열을 겪으면서도 자기 모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휴양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재물, 시간, 정력을 헛되이 쓰는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소설에 붙인 제목은 다른 인물들의 휴양 태도를 바라보는 관형의 관점을 반영한다. 관형의 이러한 관점은 절제와 근면을 강조했던 신체제의 정신과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절제와 근면의 태도로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문학자가 문학적 실천과 문학적 생활을 가지고 간다는 것만이 유일의 진리이고 예술과 생활, 문학과 정치를 통일하는 유일의 일원론’⁷⁸⁾이라 했던 김남천이, 문학 연구로 자기 모랄을 유지하는 관형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같은 설정은, 작가가 극도로 격화된 자기 모순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자기 삶을 투영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설의 제목 ‘낭비’는 관형의 논문 작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설 초반부에서 옥엽이 관형에게 던지는 “의사 아니구야 조선사람이 무슨 박사가 됩니까”⁷⁹⁾라는 물음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문학 연구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소설은 끝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만약 관형의 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낭비’는 그가 논문 작성에 바친 시간, 노력, 비용, 젊음 등이 무의미해진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 소설과 연작의 관계에 놓인 「맥」을 통해 김남천은 관형의 논문이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옥엽의 질문에 이어 난주가 던진 질문인 “조선사람이 박사되는 거, 어쩐지 송협지 안하요?”라는 말은, 가망이 없는 일에 매달리는 헛된 태도 그리고 설사 조선인이 박사가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세간의 인식을 일깨운다. 소설에서 교양과 영문학이라는 보편

78) 김남천, 「자기분열의 초극: 문학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 『조선일보』, 1938. 2. 2.

79) 김남천, 「낭비 (2)」, 『인문평론』 2권 3호, 1940, 인문사, 193면.

성은 관형 자신의 식민지성을 은폐하는 기제가 되었다.⁸⁰⁾ 그러나 옥엽과 난주의 질문은, 영문학 연구자 관형이 열망했던 자율성과 상승 욕망의 실현 불가능성, 즉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조선 지식인의 박사 되기는 제국이 인정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신체제하에서 강조되는 생산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적일 수 있다.⁸¹⁾ 관형은 스스로 논문 쓰기를 ‘아르바이트’라 칭한다. 그렇다면, 바다와 산골 휴양지에서 이루어진 그의 노동은 무엇을 창출하는가. 그의 노동은 헨리 제임스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시대적 의의를 추궁하여 구세계(유럽)와 신세계(미국)의 충돌 속에서 그 어느 쪽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로 침잠했던 작가의 심리를 분석하는 일이다. 소설에서 관형이 논문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수록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은 강조되고, 관형은 자신이 거기에 뒤섞이고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경험한다.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과 관형의 부재의식은 서로 교섭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김남천이 소설에서 관형의 논문 쓰기로 창출하는 것은 헨리 제임스의 문학 연구를 경유해 식민지 지식인이 경험하는 부재의식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일이다. 원산 해수욕장의 별장은 마치 각자가 어딘가에 개인적

80) 장문석, 「소설의 알바이트화, 장편소설이라는 (미완의) 기투: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김남천과 『인문평론』이라는 아카데미, 그 실천의 임계」,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48면.

81) 이 소설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1940년 10월 16일 국민총력연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체제하 조선의 정신총동원운동을 개혁하고자 총후 반도의 정신적 긴장과 자속을 넘어 실천 운동으로 옮겨간 정황 속에서 연재가 중단된다. 총력연맹은 고도국방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 사상 통일, 국민 총훈련, 생산력 확충이라는 범주하에 내선 풍습 융화, 단결의 강화, 책임 완수, 간이 절약 생활 강행, 건전 오락 장려, 자원 애호 활용, 근로 배가, 창의 연구 장려 등 34개의 세부적인 실천 요강을 갖추고 있었다. 김남천이 이 소설에서 구체화한 ‘낭비’와 ‘부재의식’의 생활은 여러모로 당대의 시대정신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천삼백만을 전사로, 총력운동에 신체제, 국민총력연맹의 역사적 발족」, 『매일신보』, 1940. 10. 15; 烏川僑源, 「조선총력운동과 각계동향」, 『춘추』 2권 1호, 조선춘추사, 1941, 147면.

인 해변을 가지고 있다는 기묘한 심리를 창출하며 자연을 이국적 즐거움의 대상이나 내면의 단순한 구체화로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해변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지대이다. 그런 맥락에서 휴양지에서의 논문 쓰기를 통해 보여준 김남천의 문체의 식은, 완전히 장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해변의 속성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아 상실의 모랄을 겹쳐 놓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창작 방법은 신체제가 강조했던 전체성, 명량성, 생산성과는 먼 거리에 놓여 있었기에 일제 말기의 지배 담론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5. 결론

지금까지 「세기의 화문」, 「바다로 간다」, 「낭비」를 통해 김남천이 1930년대 후반의 현실 속에서 바다를 표상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작품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고 조선인들의 일상, 특히 오락문화와 유흥장소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풍속 통제를 심화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들은 일제 말기 총동원체제의 논리하에서 바다를 자연-자원, 신체 단련의 장소로 이용했던 세대에 관한 김남천의 비판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1938년 이후 ‘풍속에 관한 평론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김남천은 해변의 풍속을 소설에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자연 개발을 조선 여성의 착취와 억압, 식민지 지식인의 부재의식과 겹쳐 보여주었다. 그리고 신체제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는 인물들을 소설에서 이상적 인간형으로 형상화했다. 이 논문은 그 점에 주목하여 작가의 소설 창작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남천은 해수욕장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바다가 인물의 의식과 감

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했다. 그의 소설에 진경화된 바다의 냄새, 색깔, 촉감, 소리 등은, 1930년대 주체성을 위협받고 있던 존재가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난 생동감이다. 그의 소설 속 바다는 조선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원산 송도원과 인천 월미도이다. 인물들은 바다에서 자신의 이성애적 욕망과 사회적 주체성을 돌아본다. 또한, 과소비와 과개발 상태에 놓인 바다의 문화와 거리를 두고 한적한 바다에서 오감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단독자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기도 한다. 다만, 그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가부장적 사회로의 종속이 그들이 갈망했던 사랑의 성취라고 믿도록 사회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들의 자기가 마조히즘과 연결될 위험을 안고 있음을 드러낸다.

작가 김남천에게 문학적 '모랄'은 실험, 실증, 실천을 거친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에 둔 풍속 묘사를 통해 성취될 수 있었다.⁸²⁾ 그런 맥락에서 그가 경성에 거주했던 인물들을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그들의 욕망과 감정 변화를 궁구하는 태도는 당대 바다의 풍속을 구체화하여 문학적 표상에 이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남천 소설 속 주인공들은 개발된 자연으로서의 강과 바다를 둘러싼 건강과 퇴폐의 담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 그것은 「세기의 화문」에서 여성 지식인이 건장한 남성 앞에서 느끼는 공포나 조흔한 남성이 신여성을 만난 순간 느끼는 고통으로도 나타나고, 「바다로 간다」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열망을 단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여급의 자기 다짐으로도 형상화된다. 무엇보다 「남비」에 그려진 인물의 부재의식은 역으로 해수욕장의 문화와 간극을 형성함으로써 거기에 갖든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 욕망을 들춰낸다.

김남천은 사회와 역사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풍속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모랄, 즉 모든 현상을 그것

82) 김남천, 「세태·풍속 묘사 기타: 채만식 『탁류』와 안희남의 단편」, 『비판』 6권 5호, 비평가, 1938, 116면.

자체로 파악하려는 인식적 태도에 도달하고자 했다. 김남천의 세 편의 소설은 1930년대 말 해변의 풍속을 관찰하며 획득한 모랄을 담고 있다. 이때의 모랄은 개인의 도덕률 차원을 초과한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의 조혼제도, 여성의 노동 환경, 아카데미즘의 억압성을 삶의 문제로 겪는 인물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소설 속에서 바다와 만나는 인물들의 예민한 감각은, 자연을 물화시켜 착취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거리를 부수고 바다의 생동감을 가시화한다. 또한, 제국이 해수욕장의 풍기문란을 통제하며 추구하는 총동원체제의 사상을 조선인이 성욕과 식욕의 탐닉으로 가볍게 미뤄두는 세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처럼 김남천은 바다의 풍속을 서사화함으로써 일제 말기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 생산력과 전체성의 압박이 자연과 인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警務彙報』, 『동아일보』, 『문장』, 『매일신보』, 『비판』, 『사해공론』, 『여성』, 『인문평론』, 『朝鮮及滿洲』, 『조선일보』, 『춘추』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 國民精神總動員』, 京城: 朝鮮總督府, 1940.
 朝鮮總督府 鐵道局 編, 『半島の近影』, 大阪: 日本版畫印刷合資會社, 1936~1937.
 이광수, 『사랑』, 박문서관, 1941~1942.

2. 단행본

- 권명아, 『역사적 과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권명아, 『음악과 혁명』, 책세상, 2013.
 다케쿠니 토모야스, 소재두 역, 『한국 온천 이야기』, 논형, 2006.
 도린 매시,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십산, 2016.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갈무리, 202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18.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역,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여성 작가와 19세기의 문학적 상상력』, 북하우스, 2022.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한길사, 2001.
 성미라, 「매저키즘: 어머니와 딸, 그 분열된 '사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알랭 코르뱅, 주나미 역, 『악취와 향기: 후각으로 본 근대 사회의 역사』, 오롯, 2019.
 정호웅, 『김남천: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길사, 2008.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흥빈·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해녀 노동과 제주도 경제에 관한 연구」, 이성훈 편, 『해녀 연구총서 4』, 학교방, 2014.
 Freed-Thall, Hannah, *Modernism at the Beach: Queer Ecologies and the Coastal Comm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3. 논문

- 강용훈, 「진시체제 이행기의 ‘풍속’ 비판 담론: 김남천과 도사카 준(戶坂潤)의 ‘풍속’ 담론에 대한 재론」, 『사이間SAI』 2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3~205면.
- 권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작과 비총체화된 총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6, 한국현대문학회, 2022, 235~268면.
- 권은, 「사상 통제의 메커니즘과 전향작가의 망탈리테: 김남천의 「속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8, 우리말글학회, 2023, 315~343면.
- 김주리, 「해변과 항구: 바다의 근대적 공간 표상과 이태준의 〈화관〉」,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173~204면.
-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57~188면.
-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김남천과 근대초극론」,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359~396면.
- 류수연, 「김남천 소설과 ‘성천(成川)」」,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1~84면.
-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 1930년대 여극의 ‘연애’ 매매와 경찰의 성매매 관리 정책」, 『여성과 역사』 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101~133면.
- 박진경 · 미야지마 요코, 「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일본인 사회, 카페/여극, 경성」, 『한국여성학』 36(3), 한국여성학회, 2020, 111~151면.
- 배하은, 「문화적 식민지의 풍경과 지식인의 ‘부재의식」」,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329~358면.
- 신정숙,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0, 2013, 225~258면.
- 이동재, 「김남천 문학의 공간적 표상과 장소성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 이향순, 「한용운의 『박명』에 나타난 보살도의 이상과 비구니의 근대성」, 『한국불교학』 51, 한국불교학회, 2008, 131~163면.
- 장문석, 「소설의 알바이트화, 장편소설이라는 (미완의) 기투: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김남천과 『인문평론』이라는 아카데미, 그 실천의 임계」,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16~257면.
- 장혜련, 「제주 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 주체」,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95~221면.
- 장성규,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근대문학연구』 29, 한

- 국근대문학회, 2014, 7~31면.
-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93~223면.
- 정우경,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차승기, 「폐허로부터의 비전: 일제 말기 김남천의 소설론과 탈식민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131~158면.
- 홍덕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다시 읽기: 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41~74면.
- 綿貫慶徳, 「明治後期から大正期における大阪毎日新聞社の浜寺海水浴場経営に関する史的考察: 新聞販売ターゲットとしての新中間層に着目して」, 『体育史研究』 21, 体育史学会, 2004, 1~14頁.

<Abstract>

The Developed Joseon and the Customs of the Beach

–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Sea in Kim Nam-cheon’s
Novels from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Jo, Yunjeo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author’s attitudes and creative methods in responding to colonial discourses through the fashions of the sea in Kim Nam-cheon’s novels of the late Japanese period. Based on the fact that Kim’s novels that set the seaside as a backdrop for major events were concentrated in the late Japanes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Flower Pattern of the Century* (1938), *Going to the Sea* (1939), and *Waste* (1940~1941) as the main objects of analysis. And I examine the author’s intention to specifically reveal the impact of the capitalist patriarchal logic embedded in imperial colonial development on Joseon society and culture.

In his three novels, Kim juxtaposes the oppressed condition of colonial Joseon people imitating the desires of others with the exploitation of nature and the sea as a means of capital accumulation. Kim embodied the situation of human appropriation of the sea as a resource for speculation or tourism, the act of human contemplation and sensation of the sea itself, and the changes in emotions and desires that nature exerts on humans. In his novels, the sea, which had been a driving force for subjectivisation and self-liberation, transforms into a space of waste and absence by the 1940s. In this way, the author conflicts with the spirit of the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 Kim Nam-cheon's novels of the late Japanese period, which embody the culture of the sea, are meaningful as an example of his literary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original spirit of literature is to cultivate the public's critical faculties and emotions by projecting everyday life and current affairs.

Key words: Kim Nam-cheon, sea, custom, colonial development, beach,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

투 고 일: 2024년 12월 6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